

# “우리 일꾼 내 손으로”... 소중한 한표 행사

## 제22대 총선 투개표 현장

생애 첫 투표... 80대까지 참여  
가족 단위·연인 투표후 인증샷  
꼼꼼히 검표작업... 개표소 분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치러지는 10일 광주·전남 각 투표소에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학생부터 환경미화원, 노부부, 직장인까지 이른 시간부터 발길을 재촉했다.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일찍 투표해야제', '운동하다 투표하러 왔네', '사진 한 번 찍어주소' 등 투표 현장을 즐기는 모습이다.

오전 8시 아들과 함께 광주 서구 상일중학교 상무1동 제2투표소를 찾은 김문희(39)씨는 "아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투표가 진행되는지,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 같이 왔다"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더 좋은 쪽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에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조민희씨(38)는 "서구에서 10여년 살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가장 먼저 나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며 "직업 특성상 일찍 투표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데 1분이라도 일찍 나와 투표해야 하지 않겠나"고 웃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시민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남기거나 지인과 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광주 북구 일곡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 서 있다.

김양배 기자

화를 하며 투표 현장을 알리기도 했다.

한 직장인은 지인과 통화에서 "빨리 투표해라, 이리다 투표 못 한다"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광주 동구 서남동행정복지센터 서남동 제1 투표소에서 만난 장희주(29)씨는 프로야구팀인 KIA 타이거즈 응원 용지를 들고 투표소 입구에서 기념촬영에 나섰다.

장씨는 "투표 인증도 하고 손등에 찍는 것보다 오래 기억될 것 같아 인증 용지를 가져왔다"며 "또래 투표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에 인증 용지를 게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집값이 비싸서 결혼 준비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잘못 오거나

신분증을 놓고 와 다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양모(45)씨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장소라 다시 다녀와야겠다"며 "투표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헛갈린다.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30대 박모씨는 "이사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투표소가 어디인지 몰라 돌아다녔다"며 "출근을 해야 하는 데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고3 유권자도 생애 첫 투표를 하기 위해 월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고3 유권자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돼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투표권은 2006년 4월 11일 출생자까지 주어진다. 김시연(18)양은 "투표에 참여 해보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왔다"며 "학교에서도 투표는 소중한 권리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실천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민희(18)양은 "도장을 손등에 찍어 올리는 '투표 인증'을 꼭 해보고 싶었다. 내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 신기하다"며 "공약집을 잘 읽어봤다. 학생층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찍으려고 한다"고 했다.

전남 지역에서도 총선 열기가 뜨거웠다. 영광군 영광읍 제4투표소(해룡고등학교)에선 가족 단위 유권자가 많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온 한 부모는 투표 절차를 '교육' 차원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인생 첫 투표를 마친 뒤 설레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체육복을 입고 온 김가은(18)양은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생일이 지난 친구들과끼리 투표하러 왔다"며 "같은 학년생끼리도 누구는 (투표가)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해서 신기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잘못찍을까봐 떨렸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장애인들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와 귀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홀로 지팡이를 짚고 투표장을 찾은 시각장애인 김모(60)씨는 "곱추병(척추후만증)이 있는데 앞까지 잘 보이지 않아 평소 거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럼에도 투표하러 왔다. 대선 이후 투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국민의 고통·어려운 목소리가 여야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역대급 투표율에 개표소도 분주했다. 오후 8시께 찾은 광주 동구 다목적체육관 내 개표원들은 쏟아지는 투표용지를 정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투표용지는 개합·점검부를 시작으로 우편투표전담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등을 거쳐 최종 취합됐다. 수백명의 검표원들은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가 새나가지 않도록 검표작업에 매진했다.

한편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은 67.0%로 지난 21대 총선(66.2)보다 0.8%포인트(p) 높고,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송민섭·정성현·정상아 기자

## 100세 고령자들 투표권 행사 "좋은나라 됐으면"

### 108세 김정자·104세 이영조씨 104세 선대규씨는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광주에서 100세가 넘는 고령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이어졌다.

광주 동구지역 유권자 중 최고령자인 김정자(108) 여사는 동구 계림1동 제2투표소를 찾았다.

딸과 함께 투표소에 입장한 뒤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원들은

"1915년생이라고요?"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15년 일제강점기 태어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간단히 요기를 한 뒤 투표장을 찾았다. 1963년 10월15일 제5대 대통령선거를 첫 투표로 지금까지 투표권을 포기한 적 없다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계속 투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년을 더 살아 동구를 넘어 광주 최고령자 유권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선명학교(주월1동 제3투표소)에서는 이영조(104)씨가 투표를 마쳤

다. 이씨는 아내 차정순(89)씨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에 들어섰다. 이씨는 "국민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건강할 때까지 계속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역 남성 중 최고령자인 서구 풍암동 선대규(104)씨가 지난 사전투표 기간 투표를 마쳤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지역 총 선거인은 119만9582명, 전남은 156만4212명이다. 광주 최고령 유권자인 광산구 신창동 거주 113세 여성과 나주시 토계동 거주 122세 여성 유권자는 건강상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민섭 기자



양금덕 할머니 투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0일 광주 서구 쌍촌종합사회복지관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